

한국,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 G20·OECD 회원국의 대략 평균 수준에 위치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명목가격 및 명목환율로 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G20 중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내수비중이 낮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실질가격 및 실질환율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목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을 G20와 OECD 회원국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2011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은 42개국 중 각각 11위와 29위로서 전체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지나치게 취약한 수준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위기가 장기화 되고 세계경제마저 저성장추세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대외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에 대한 우려보다는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활성화 간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도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우리나라 경제는 G20 중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반대로 내수비중은 지나치게 낮아서 외풍에 무방비상태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함
 -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으로 대외악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우려함
- 이러한 주장의 분석대상이 된 G20에는 주요 OECD 유럽 국가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선진국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의 패턴을 반영하지 못함
 - G20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포함하지만 상당수의 OECD 유럽국가들이 누락되어 있음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주요 OECD 유럽국가들은 제외된 채, 8개 신흥개도국을 포함하는 G20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취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¹⁾
 - G20 회원국 중 선진국은 11개국뿐이므로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²⁾

1) G20는 OECD 11개 회원국(캐나다, 멕시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터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EU, 그리고 신흥개도국 8개국(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포함.

2) EU는 개별국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42개 주요국에 포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 시차 간·국가 간 격차를 감안하기 위해 실질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명목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 실질가격과 실질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시차별, 국가별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있으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함
 - 명목가격을 사용한 언론 보도 내용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국만 G20 및 OECD 42개국으로 확장하고 명목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함

- 2011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G20 및 OECD 42개 회원국 중“11위”, 내수비중은 “29위”
 - 2011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110.3%로 오스트리아(110.6%), 네덜란드(157.0%), 벨기에(167.5%), 아일랜드(187.9%)등 보다 낮음
 -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2.9%로 벨기에(52.6%), 덴마크(48.6%), 스웨덴(47.8%), 네덜란드(45.0%), 노르웨이(41.5%)등 보다 높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2006~2010년 기간 동안 42개국 중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평균“15위”, 내수비중은“29위”
 - 2006~2010년 사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93.1%로 스웨덴(95.0%), 덴마크(99.5%), 오스트리아(107.3%), 네덜란드(140.6%), 벨기에(159.4%)보다 낮음
 - 같은 기간 한국의 내수비중은 54.1%로 오스트리아(53.9%), 핀란드(52.8%), 벨기에(52.0%), 덴마크(48.4%), 스웨덴(47.7%), 노르웨이(41.6%)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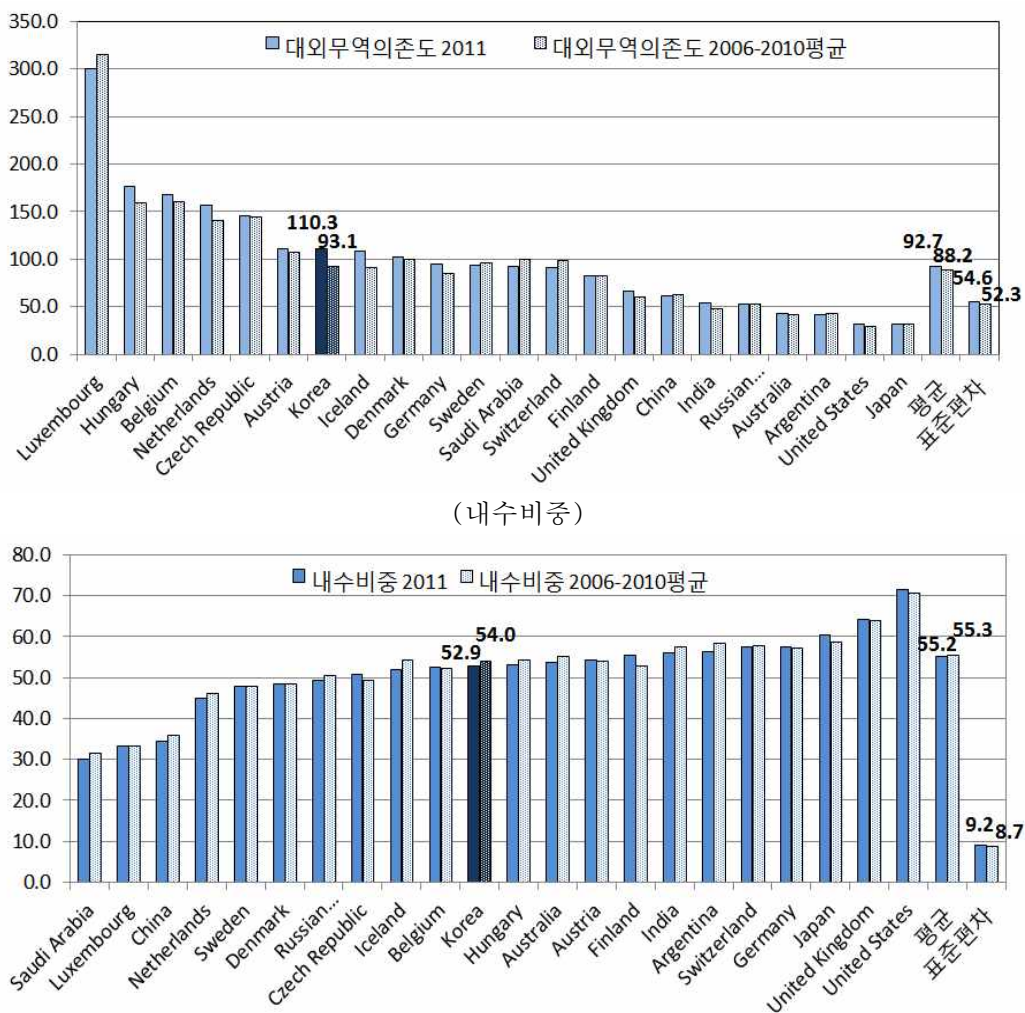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 면에서 OECD와 G20 회원국들의 대략 평균 주위에 위치해 있음
 - 우리나라의 2011년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은 각각 110.3%와 52.9%로 42개국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각각 17.6%p, 2.3%p임³⁾
 - 2011년 대외의존도 평균에서 1-표준편차 범위 내(55.7% 이상~164.9% 미만)에 덴마크(102.2%), 독일(95.2%), 스웨덴(93.7%) 등이 평균주위에 몰려있음. 반면에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나라들은 미국(31.6%), 일본(31.4%), 아일랜드(187.9%), 룩셈부르크(300.0%).
 - 2011년 내수비중 평균에서 1-표준편차 범위 내(43.8% 이상~62.1% 미만)에 호주

3) 2011년 42개국의 대외의존도 평균은 92.7%, 표준편차는 54.6%. 2011년 42개국의 내수비중 평균은 55.2%, 표준편차는 9.2%.

(53.8%), 독일(57.4%), 덴마크(48.6%), 네덜란드(45.0%)등이 평균주위에 몰려있음. 반면에 미국(71.6%), 영국(64.3%), 중국(34.4%), 룩셈부르크(33.3%)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남.

- 2006~2010년 기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은 42개국 평균과 각각 4.9%p 및 1.2%p 격차를 보여 평균 주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OECD 및 G20 주요 회원국의 대외의존도 및 내수비중
(단위: %)



자료: OECD, IMF

-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은 G20+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수준은 결코 아님. 따라서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저성장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외 충격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함.